

김준의 갯살이



겨울바람과 갯살이

바다가 가까워지자 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불길했다. 혹은 배가 뜨지 못하는 것 아닐까. 고개를 넘어서자 섬들이 보였다. 바람은 금방이라도 바다를 뒤집어 놓을 듯 거친 호흡을 토해냈다. 파도가 하얗게 일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갯벌생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바람이다. 어민들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오는 답답증과 울렁증 때문이다. 섬사람들만 하는 육지말미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증상을 갯바람을 쐬지 못해 나타나는 '갯바람 결림증후군'이라 칭한다. 몇 년 전 바닷가에서 만났던 한 어머니도 같은 증상을 앓았다. 그 어머니는 평생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나직을 잡으며 살았다. 추석과 설 명절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갯벌에 나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개발로 갯벌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갯일을 할 수 없었다.

니 물때를 잊어버렸다. 그 물때를 기억해낸 것은 어머니의 몸이었다. 머리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시간이었다.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달빛을 보고 가능해보니 오늘이 세물이다. 바닷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더불어 갯바람도 일어난다. '서무날 바람은 꾸어서라도 부다'고 했다. 갑자기 그 갯바람에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시원한 갯바람이 그리웠다.

고기잡이 배들은 파도가 닿지 않는 포구 안에 쫄쫄 모여 있었다. 여객선터미널은 썰렁했다. 본격적인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북쪽이나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섬사람들은 이 바람을 하늬바람이라 부른다. 표준어 국어대사전에 도 하늬바람을 '서쪽에서 부는 바람, 북쪽에서 서북쪽이나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라 정의한다.

결국 어머니는 자식과 약속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옛날처럼 갯벌에 나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갯바람만 마셔도 살 것 같았다. 소화가 잘 되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겨울바람이 해조류를 살찌운다. 코골이 정도도 매서운 바람이 불어야 갯벌에 갑태도 자라고 굴도 튼실해진다. 김발이나 매생이밭에도 좋다. 컷물이 툭툭 떨어지는 찬바람 통에 짭조름한 꼬막도 맛이 들기 시작한다.

고통스런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어느 겨울이었다. 섬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풍랑주의보로 배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일이면 배가 오겠지, 또 내일이면 배가 오겠지. 그렇게 육지 쪽만 바라보다 일주일을 지냈다. 겨울철 갯벌은 한 번 끊기면 최소 사흘이다. 하늬바람의 심술이다.

하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먼 섬에 사는 어민들은 어장을 서둘러 마무리한다. 그리고 가을 햇볕에 갈무리해둔 미역과 마른 생선을 한 아름 싸 들고 물고기로 나온다. 섬사람의 긴 동안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동안기는 설명절을 지내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사이 섬 집은 잊지 못하고 몇 차례 오고 간다. 사실 섬 집은 핑계고 물 생활에서

자식들은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내친김에 서울 사는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셨다. 아파트는 갯바람을 물론이고 햇풍도 없이 따뜻했다. 머느리가 따뜻한 밥까지 해주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어김없이 바닷물이 들고 나는 시간에 맞춰 눈이 떠졌다. 달력을 보지 않고도 가능해 변한다. 그렇게 달포를 주기로 반복된다. 어머니는 며칠 아파트에 갇혀 살다 보

고통스런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어느 겨울이었다. 섬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풍랑주의보로 배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일이면 배가 오겠지, 또 내일이면 배가 오겠지. 그렇게 육지 쪽만 바라보다 일주일을 지냈다. 겨울철 갯벌은 한 번 끊기면 최소 사흘이다. 하늬바람의 심술이다.

기고

4천명이 부른 아리랑 합창



김중애

며나 먼 미국 땅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객석을 가득 메운 4500여명 관객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 객석을 메운 관객 가운데는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있었고, 회한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다.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이스치클룰극장에서 열린 임방울극악제 수상자 공연에는 전대완 주 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 등 4500여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임방울 극악진흥회 제공)

비배 의미가 더 깊었다. 특히 공연이 열린 11월 17일은 고려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1937년 11월 17일 고려인 강제 이주의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통한의 날이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러시아 극동지역인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르스크, 이르츠크 등에서 보통 시민으로 선량하게 살아가던 고려

인들을 느닷없이 혁명 광장에 집결시켜 6000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쫓아냈다. 수많은 우리 동포(고려인)가 집적처럼 원형열차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배고픔과 감추워도 목숨을 잃었다. 구소련 기록에 따르면 17만 명의 고려인이 사망이나 다름 없는 허허벌판에 버려졌

고 그해 7000여명 다음해에 4800여명이 숨졌으며 암담할한 흑한으로 수만 여명이 병을 앓았다.

현재 구소련에는 50만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우즈베키스탄에 절반인 25만명이 살고 있다.

진흥회측은 아픈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살아남은 동포를 위안하고,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수상자 공연장소로 결정했다. 판소리와 무용 등 고국의 예술을 보고 자긍심을 갖고 위로 받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는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회원 수백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연 단원중 정음시립극단 김찬미 명창이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 옥방 찬자리에 생각난 것은 임뿐이라'며 유망한 쑥대머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쑥대머리는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고 한을 위로하던 음유시인이자 국장 임방울의 대표 소리다. 절절히 토해내는 구슬픈 가락에 관객들은 절로 숙연해졌다.

이날 공연의 대미는 아리랑 합창이었다. 전 출연진이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자 4400명의 관객이 함께 따라불렀다. '아리랑'은 슬플 때나 기쁠 때 우리 이웃이 함께 부르는 가슴의 노래요, 우리 마음의 노래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사)임방울극악진흥회 이사장>

중고칼럼

안빈낙도(安貧樂道)



주혜정

안빈낙도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지내는 생활로 공자(孔子)가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정신 중에 하나다. 나물 먹고 물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어도 낙(樂)이 그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 그 얼마나 여유롭고 한가한 심경인가.

의 뜻을 설명하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빈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중략)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라고 했다.

있는 것일까? 하나라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고, 10개를 가져도 만족을 모르다면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일 거다. 히말라야 오지마을 사람들의 삶을 TV를 통해 봤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 못하지만 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과 서로 도와가며 화목하게 살고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이 과연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여 불행한 사람들라고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산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process' 진행이라고 한다. 어떠한 정점에서 성공은 없다. 오늘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고,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먼 미래에 오게 될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면 최후의 행복은 없다.

오늘 하루를 평상심(平常心)으로 살며 나의 현재에 만족하며 살수는 없을까. 원불교 정산종사는 평상심에 대하여 '편안한 때에도 항상 조심하는 대중을 놓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에도 항상 규모 절도를 범하지 아니하여 한가지 거(거)하나 난중에 처하나 그 부동하고 유유한 정신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평상심이니라' 하였다.

겨울이 오는 길목에 서있다. 몸과 마음이 추워지기 쉬운 계절이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간혹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도 가지지 않는다면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원불교 신창교당 교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써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광주시민 사먹는 물값만 950억원 이라니

광주시민이 한해 정수기 사용 및 생수 구입 등으로 사먹는 물값만 95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있는 셈이다. 시민들이 그만큼 음용수로서 수돗물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가 수돗물의 안전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빛어울 수'가 무색할 지경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생활비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이 22일 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이 1년 동안 물값으로 지출한 금액은 1850억 원 가량이므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수돗물값으로 900억 원을 내고 있지만, 나머지 950억 원은 정수기와 생수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지난 5월 수돗물 오염사태가 발생하면서 화를 키웠다. 당시 용연정수장에서 관리 소홀로 응집제가 과다 투입돼 아파트 단지 279곳에 알부미늄(AI이 기준치를 최고 10배 이상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된 때문이다. 6월 가까이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 52만 가구 중 정수기 보급률은 44.2%로, 23만 가구에 이른다. 1가구당 정수기 렌탈비와 필터 교환비용 한 달 평균 2~3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정수기 사용 등으로 쓰는 돈이 5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광주지역 1년 생수 판매량이 4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합산하면 한해 95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철저한 수돗물 관리와 수질 안전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수돗물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면 광주시의 존재는 물론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불우가정 '촛불화재' 비극 다시는 없어야

조순가정의 할머니와 손자가 촛불을 켜고 잠이 들었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고 생활해왔다고 한다. 초겨울 추위에 전기도 없이 오늘 오늘 떨었을 할머니와 손자가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가. 전류제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용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도 해주어야 한다.

지난 21일 발생한 고흥 촛불화재사건의 원인은 화재가 아니라 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한전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생활이 어려운 조순가정의 전기를 꼭 끊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류제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지자체가 세대당 5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들 세대의 경우 10월 22일 전남도가 시·군을 통해 전류제한에대 현장을 파악할 당시만 해도 해당되지 않았다.

한전은 단전이 아니라 전류제한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한다. 6개월분 전기료 15만7000원이 밀린 만큼 전류제한기를 설치, 순간 사용량 220와트 이상의 전기 사용을 제한했을 뿐 전등 한두 개와 TV, 냉장고 등은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납 6개월이 되는 시점인 10월 31일 한전의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것이다. 군이 점검 당시 예견되는 사항까지 파악이 아니라 전류제한조치가 실시 사실을 군에 알렸다면 이런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하지만, 이들은 전기가 완전히 끊긴 줄 알고 촛불만 켜고 생활했다. 한 달에 3만 원도 안되는 전기료를 내지 못했다 고 전기 사용을 제한한 게 가당할 일인

지금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복지의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보살피는 정책을 우선할 때 진정한 복지가 이뤄질 것이다. 그래야만 이번 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주변의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無等鼓

'슈팅 라이크 베컴'과 '오프 사이드'는 월드컵이 열린던 해에 개봉한 축구영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마초적(남성적)이고 차별과 배제의 이데올로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축구에서 여성이 겪는 아픔을 그렸다는 점도 공통분모다.

다. 이들 영화처럼 축구에 목숨을 거는 여성들도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게 축구는 먼 존재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거리가 '축구'와 '군대'라는 아픔이 있다. 이렇다 보니 여자들이 쫓아 보내려던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2002년 작 '슈팅 라이크 베컴'은 축구를 너무도 좋아하는 두 소녀 이야기다. 인도 소녀 제시와 영국 소녀 줄리스는

여자들이 축구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국내의 연구팀이 월드컵과 사법고시 합격생의 성비(性比)를 분석한 결과 월드컵이 열린 2002년과 2006년의 여성 사시 합격생 비율이 월드컵 개최 직전이나 직후 연도에 비해 7%가량 높게 나타났다.

축구와 여성



이들 영화처럼 축구에 목숨을 거는 여성들도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게 축구는 먼 존재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거리가 '축구'와 '군대'라는 아픔이 있다. 이렇다 보니 여자들이 쫓아 보내려던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여자들이 축구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국내의 연구팀이 월드컵과 사법고시 합격생의 성비(性比)를 분석한 결과 월드컵이 열린 2002년과 2006년의 여성 사시 합격생 비율이 월드컵 개최 직전이나 직후 연도에 비해 7%가량 높게 나타났다.

2006년 전주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오프 사이드'는 이란 소녀들의 축구 사랑을 그렸다. 이란과 바레인의 월드컵 16강전을 보기 위해 남장을 하고 경기장에 진입하려다 발각돼 울타리안에 갇혀 라디오 중계를 들을수 밖에 없는 이란 소녀들의 현실은 축구가 여성에게 얼마나 억압적인 굴레인가를 보여주고 있

다. 이들 영화처럼 축구에 목숨을 거는 여성들도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게 축구는 먼 존재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거리가 '축구'와 '군대'라는 아픔이 있다. 이렇다 보니 여자들이 쫓아 보내려던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2006년 전주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오프 사이드'는 이란 소녀들의 축구 사랑을 그렸다. 이란과 바레인의 월드컵 16강전을 보기 위해 남장을 하고 경기장에 진입하려다 발각돼 울타리안에 갇혀 라디오 중계를 들을수 밖에 없는 이란 소녀들의 현실은 축구가 여성에게 얼마나 억압적인 굴레인가를 보여주고 있

다. 이들 영화처럼 축구에 목숨을 거는 여성들도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게 축구는 먼 존재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거리가 '축구'와 '군대'라는 아픔이 있다. 이렇다 보니 여자들이 쫓아 보내려던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 for both the newspaper and its English version.